



건의

이 글은 지난 3월 국회산자위와 국방위에 제출한 건의 내용을 옮긴 것이다.

- 편집자 주 -

2001년 한국군 군납 관련 정유업계 입장 및 건의

- 대한석유협회 -

1. 최근 국내 정유사들의 군납 유류 입찰불참 등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.

▶ 그동안 국방부 조달본부의 2001년도 군납 유류 입찰에 정유사들이 4차례나 참여하지 않아 자동유찰됨.

- 국방부 조달본부는 금년도 군납 유류 6억9700만ℓ (군용 항공유 3억330만ℓ, 경유 1억8900만ℓ 등)를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 실시

▶ 이같은 '정유사들의 군납 입찰 불참으로 군용 유류의 조기 소진 및 국가 안보 등이 우려되며, 이는 지난 해 소송에 대한 보복 및 국방부의 입찰방식 변경에 대한 조직적 반발이라고 담합 의혹을 제기 함.

▶ 또한, '국내 정유사들은 지난 해 군납 유류를 납품하면서 주한 미군 및 주일 미군 공급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공급하여 335억원의 폭리를 취하였음'.

2.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,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군납 입찰 불참 등에 대한 정유사들의 입장을 폐 협회의 명의를 통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

① 군납 예정가격 산정의 문제점

▶ 국방부는 2001년 석유류 입찰 예정가격을 국제현물시장(MOPS)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, 동 시장은 한계시장으로서 가격도 변동비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.

- 따라서, 대규모 장치/설비 투자에 따른 고정비를 부담해야 하는 정유업계의 특성상 고정비를 고려하지 않은 변동비 수준으로 납품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.

※ MOPS : Mean of Platt's Price in Singapore

▶ 더구나, 국제현물시장가격(MOPS)을 기준으로 한 군납 예정가격은 MOPS에 관세(7%: 약16원/ℓ) 및 수입부과금(14 원/ℓ) 정도만 고려되어 있어 정유사들의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.

2001년 군납 예정가격 수준

(단위: 원/ℓ)

	1,2차 입찰			3,4차 입찰		
	예가(A)	MOPS(B)	차이(A-B)	예가(A)	MOPS(B)	차이(A-B)
무연휘발유	250.40	222.07	28.33	269.27	238.57	30.70
저유황경유	260.40	231.90	28.50	274.54	223.49	51.05
실내등유	263.00	232.76	30.24	271.83	239.70	32.13
JP-8(RTC)	269.53	232.76	36.77	269.53	239.70	29.83

▶ 이 같은 가격 수준으로 국방부에서 원하는 수량 및 납지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.

- 더구나, 군납 규격은 민수용과는 달리 특수규격을 소량 주문 생산하여야 하고, 납지 또한 도서벽지 등 1,000여 군데에 달하고 있어 수송비, 저유비 등도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.

▶ 군납 예정가격 산정의 불합리성은 국제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정유사 뿐만 아니라 대규모 수입업자들조차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서 잘 알 수 있습니다.

② 입찰방법상의 문제점

- ▶ 금년들어 단일업체가 입찰항목별로 전량을 계약/공급토록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정유사들의 생산/저장/수송 수단의 제약성을 고려할 때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납지에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▶ 또한, 국가비상사태 발생시나 평상시 군용 유류 수요가 증가하거나, 단일계약업체의 설비가 파손될 경우 타 업체로 설비 전환 소요기간이 길어 군용 유류의 적절한 공급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③ 미군납 대비 335억원 폭리 관련

- ▶ 미군납 유류는 미국방성에서 아시아 전체 미군 소요 물량을 일괄 구입하는 물량(정기분)과 주둔국에서 구입하는 물량(지역분)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- 미국방성에서도 대형물량이 거래되는 정기분과 소량인 지역분에 대하여 가격차등(100원/ℓ 이상)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
- ▶ 한국군 군납가격은 미군납 정기분에 비해서는 높으나, 미군납 지역분 보다는 오히려 휘발유는 38원/ℓ, 경유는 97원/ℓ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.
- ▶ 따라서, 미군납 정기분 가격만을 근거로 국내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, 관련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수치상의 비교에 불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④ 전시 비축유 사용 등에 따른 우려

- ▶ 국내 정유사는 국방부 입찰결과와는 상관없이 지난 3월1일부터 상대적으로 재고가 부족한 저유황 경유부터 사전 납품(사후 정산)을 하고 있으며,
- ▶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타 유종에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므로 군 작전용 유류 수급 문제 발생 가능성이 없습니다.

3. 군납 유류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 군납 유류 입찰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▶ 국방부의 석유류 입찰은 국가안보 측면 및 수송/저유상 한국군 군납의 특수성 등을 고려시 국내 생산제품의 공급이 불가피하므로,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적정 수준의 생산원가가 반영되어야 합니다.
- ▶ 만일, 국방부에서 한국군 군납 석유제품 공급을 국제현물시장(MOPS)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합리적인 수입업체 기준에 따라 해외운임, 보험료 및 국내공급비용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이 산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.
- ▶ 또한 현행 단가제 입찰방법도 군납 유류 입찰의 특수성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, 국방 전략의 차원에서 국가비상사태시에도 적시에 안정적인 유류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할 것 입니다.

4. 정유업계는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군납유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가안보에 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- ▶ 국내 정유업계는 작년 하반기 이후 고유가 및 환율 인상에 따른 대규모 환차손 발생으로 2000년 세후 기준 2,100억원이 넘는 적자를 시현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, 이러한 경영여건을 감안할 때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군납입찰에 응찰하기는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.
- ▶ 군납유류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여하한 경우라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, 최근 조달본부의 사전납품 요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등 추후도 국가안보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☺